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 오늘 2차 헌금 있습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6년 '영성의 해' 영성특강 전체 일정

3/15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Fr. 김동권 사무엘 (뉴튼 수도원 원장)
5/17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Fr. 이용호 프란치스코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6/14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Fr. James Gannon OFM (작은형제회 미국관구)
7/5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이설빈 세례자 요한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10/11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11/15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12/13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2027년 달력 광고 신청

2027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달력을 제작합니다.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 마감: 6월 14일(주일)- 7월 26일(주일)까지

신청: 재무 데스크(*광고 게재비는 추후 공지할 예정)

*광고 신청하신 분들은 달력에 게재할 광고 시안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2026년 제43차 미동북부지구 올뜨레야 대회

일시: 7월 4일(토) 9:00AM-3:00PM

장소: 뉴저지 메이플우드성당

참가신청문의: 347-707-0305(간사 윤복흥 요한)

제30차 2026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 17, 21)

일시: 7월 25일(토) 오전 9:00-오후 8:30,

7월 26일(주일) 오후 12:00-오후 6:00

장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280 Parker Ave. Maplewood, NJ 07040)

강사: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 (예수회 호주 관구),

조홍래 베드로 신부, 신용문 야고보 신부

참가비: \$40 (토요일 점심 저녁, 주일 점심 포함)

신청: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주최: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지도신부: 조민현 요셉)

* 오늘은 교황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와 인류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교황님께서 성령의 인도 속에 필요한 은총을 충만히 받고 영육간의 건강 또한 잘 지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황을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들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일꾼 레오 14세를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맡은 양 떼를 보살피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오늘의 말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마태 10.38)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황일광 시몬 (1757-1802)



황일광 시몬(1757~1802)은 충청도 홍주의 천민 출신으로, 1792년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하고자 동생 황차돌과 함께 고향을 떠나 경상도로 이주하였다. 신분 차별 없이 자신을 평등하게 대해 주는 신자들의 애덕에 감격한 그는 "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 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라며 기뻐하였다. 이후 동생과 함께 한양으로 이주하여 땔나무를 팔며 생계를 이어 가던 중, 1801년 신유박해로 체포되었다. 모진 고문 속에서도 그는 "이제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찌 배교하여 천주교 신앙을 저버리겠습니까? 빨리 죽기만을 원할 따름입니다."라며 신앙을 굳게 지켰다. 고향 홍주로 압송되는 길에 아내와 아들이 최후까지 도우려 따라붙었으나, 가족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는 유혹에 빠질까 두려워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1802년 1월 30일, 45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88, 가해, 2026. 06. 28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r@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다시 만난 신약 성경

사랑하느냐?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5)라고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 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오래전에는 이 대화를 보면서,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글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쉬워 보였고 양들을 돌보라는 것은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다고 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양들을 돌보라고 일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라고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니,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라는 말씀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더 어렵게 보입니다.

오늘도 또 다른 할머니 이야기를 하자면, 종종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식사 시간인지 취침 시간인지도 헷갈리시는 95세 수녀님이 계십니다. 돈을 가위로 잘라 놓기도 하고, 미사 시간에 성무일도를 펼쳐 놓고는 영성체하시라고 해도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모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동체 수녀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녀님들을 사랑해요. 내가 자꾸 잘못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내가 수녀님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요한 21,16)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요한 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대사제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고 잡아떼었습니다. 20장에 서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성령을 받았지만, 21장에서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했어도, 예수님은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생각하던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데 예수님은 양들을 돌보라는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보다 베드로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신 양들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 복음이 끝나지만, 요한 복음에서 한구절은 다시 인용하고 마쳐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20,31).

* 출처: <의정부주보>, No.1187, 2026. 06월 21일



그림 묵상

이인삼각 |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일생이 내 믿음 속 두 개의 첨탑으로 솟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아래의 주춧돌은 이인삼각으로 묶여 있을 것 같고요. 낮과 밤이 빛과 어둠의 한계를 정하듯,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열정이 있기에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게으름은 흔들어 깨우고, 헛된 것은 말없이 잠재우는 두 분의 눈길을 바라봅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19호, 2026년 6월 28일(가해)